



신바람 나는 현장으로 고객만족 추구

KCC 주식회사 KCC건설
KCC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고객만족은 일할 맛 나는 현장으로부터’

(주)KCC 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지구 1단지의 박재성 현장소장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이다. 이와 같은 이념을 갖고 있어서 일까 이곳 현장은 지난 2005년 첫 삽을 뜬 이래 현재까지 사소한 사고도 또한 전혀 없는 무재해 현장을 이루고 있다.

(주)KCC 건설은 이곳 현장에 완벽한 무재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품질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전 근로자로부터 자발적인 개선 활동을 독려

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장을 우리협회 한경보 회장이 방문해 박재성 현장소장, 김성욱 공사과장 등과 공사 진행 현황 및 안전시공을 위한 주안점 등에 대한 방침을 들어보았다. 공교롭게 이날은 시행사 담당자인 SH공사 사업1본부 건축팀 서보현 담당도 지도·점검차 방문하였다.

서보현 담당은 이곳 현장에 대해 박재성 현장소장을 비롯한 KCC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SH공사가 추구하는 인간미와 자연미가 어우러진 아파트, 도시미와 현대미



☉ 또 하나의 명작 'KCC SWITZEN'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발산지구 1단지 현장의 주역들.

로 앞서가는 생활공간을 창조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장 모범적인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 뿌듯한 성취감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곳 현장이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그 사례를 보면, 토공사 및 지하구조물 공사시 공정, 품질, 안전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하도록 PC로 제작한 흙막이 버팀대를 사용하였고, 아파트 최상층 옥탑구조물 시공 시에도 공정, 품질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조물을 PC로 제작하여 시공하였다. 특히 계단실 면을 평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지미장을 적용했는가 하면 발코니 벽면은 전체를 퍼티 작업으로 품질을 개선해 입주자를 고려하였다.

환경 개선 활동 또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갱폼분진망 내부에 방음막을 추가로 설치해 소음 및 비산먼지의 외부 유출을 막았으며, 주변 세대쪽으로는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외부에 방진막을 시공하였다.

현장 입구에 들어서며 가장 눈에 띄는 공사통로에 대해 문자 김성욱 공사과장(건설안전기술사)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적용시켜 현재는 고차원적인 안전기법도 적용시키고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해가 가장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래형 3대 재해 즉, 추락, 낙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20곳의 호이스트 탑승구에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했으며, 근로자의 주출입구에 안전통로를 설치함은 물론, 현장 외부의 근로자 통행로 상에도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분전함에 모두 접지공사를 하였고, 근로자가 전동공구 반입시 누전, 접지여부를 사전에 점검토록 함으로써 감전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켰다고 하였다.



박재성 현장소장(건축시공기술사)

- 1972년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78년 (주)KCC 건설 입사
 - 대전EXPO관리공급시설공사 현장소장
 - 천주교 수원교구 안양중앙성당 현장소장
 - 신림 주공아파트 현장소장
 - 본사 건축부장
 - 인천 당하리 금강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 현 발산S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

현재 건설현장에 있어 시설 안전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규격화된 상태이기에 이제는 시설 측면 안전지원보다 근로자의 의식전환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 공사과장 김성욱 기술사는 박재성 현장소장과 신규 채용시 교육실시에서부터 위험공종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까지 수시로 작업자들을 교육시키며 작업자들의 의식전환을 시도하기로 협의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이 높은 작업자를 매월 6~10명 정도 선정해 우수근로자로 포상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있다.

(주)KCC에서는 현장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회사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된 현장에 대해 다음해에 2박3일의 해병대캠프에 입소시켜 정신무장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KCC에서는 현재 현장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 신규채용시 현장교육 과정에 혈압을 체크토록 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자를 작업투입 전에 체크하여 작업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혈관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혹서기에는 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소의



해병대캠프에 입소해 정신무장을 다지고 있는 현장직원들 <사진제공·KCC건설>



설치(이 현장의 경우 4곳에 설치 운영중) 및 얼음물과 아이스 목도리 등을 지급하여 혹서기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고 있다.

(주)KCC 발산지구 1단지 현장의 경우 현재 마감작업 중이므로 마감작업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율이 떨어진다는 경험에 맞추어 3 리운동을 실시중이다. 3 리 운동이란 “머리에는 안전모, 허리에는 안전벨트, 다리에는 안전화”를 말하는데 이 현장은 이 운동 추진으로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신규채용시 안전보호구 지급은 물론 이와 별도로 각 동 출입구에 별도로 안전

모를 약 100개정도 비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자는 안전통제실을 거쳐 신분증과 안전보호구를 교환하여 착용해야 현장에 출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말 무재해 1배수(1백만시간)를 달성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이를 공인 받았으며, 2007년 2월에는 SH공사 사장으로부터 ‘품질, 안전표창장’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현장은 향후 목표로 설정한 ‘준공시까지 2배수 무재해 달성’을 향해 오늘도 전 직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 ① 현장을 방문한 SH공사 사업1본부 건축팀 서보현 담당과 공사 현황을 협의하고 있는 박재성 소장
- ② 박재성 현장소장, 김성욱 공사과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경보 회장

